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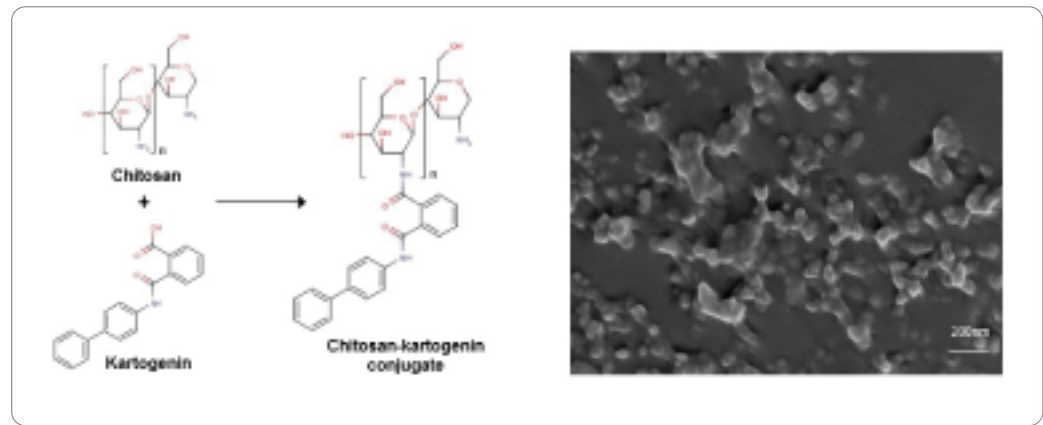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 퇴행성골관절염 주사치료제 미국특허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가 최근 연골 재생 및 퇴행성 골관절염 주사치료제 개발과 관련 미국특허를 획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골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추세이며, 초중기의 퇴행성 골관절염에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골관절염 재생효과는 주목 받을만하다. 새롭게 개발된 카토제닌-키토산 복합체를 골관절염 관절 내 주사제로 사용 시 연골 재생은 물론 약물의 농도, 투여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골관절염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향후, 기술이전 및 안전성, 유효성 등 임상을 거쳐 현재 치료법보다 한 단계 발전된 치료제로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퇴행성 골관절염의 연골재생용 치료제로 개발된 키토산-카토제닌 복합체의 구조식(좌) 및 나노입자의 전자현미경 사진(우)

고양시 최초 미래 의대생을 위한 진로 탐색 메디컬 캠프 진행

지난 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미래 의대생을 꿈꾸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진로 탐색 메디컬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고양지역 및 인근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의학체험과 의료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캠프는 동국대학교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의과대 강의실에서 의과대 기초의학 교수 및 임상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했으며, 동국대학교 의과대 의예과 재학생들이 멘토가 돼 프로그램 진행을 도왔다.

또, 1일 의대생 체험프로그램으로 의과대 실습실에서 조별로 ▲모의 복강경수술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의대생들이 소개하는 의대 입학과정 및 의대 생활 소개 ▲병원방문견학 체험 등을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광기 연구부원장은 “의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실제로 의사의 꿈을 이뤘으면 한다.”고 전했다.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일 덕양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의 강의로 이뤄졌다.

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당뇨에 대한 예방과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 주기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평소 생활습관을 교정해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뇨병 환자인 경우 꾸준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해 망막, 신장, 신경 등에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교수는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질환이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정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인 ‘韓主醫(한주의) 힐링타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韓主醫(한주의) 힐링타임’은 동별 담당 한의사 1인과 방문간호사 1인으로 구성해 총 7개 주치의 사업팀이 월 1회 각각 동별 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방문의료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이뤄진 7개 한방 의료기관은 매월 4~5명의 일산동구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찾아가 한방 진료 및 침 시술, 건강교육, 한방 건강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 참여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해 일산자생한방병원, 하안마음 한의원, 숲속부부한의원, 백마성동한의원, 이원행 화점몽한의원, 경희대성한의원 등 7개 한방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한다.